



멕시코 주지사 재임시 오명(汚名)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수가 있는데, 한가지는 2006 년 5 월 멕시코주 산 살바르도 아텐코 (Atenco)와 텍스코코 (Texcoco)지역의 마찰에서 발생한 경찰력의 개입과 주민들과의 충돌이라고 할 수있는데, 흥분한 연방 및 주, 군경찰들이 무자비하게 주민들을 진압함으로서, 211 명의 연행, 두명의 사상자, 26 명에 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고문, 비인권적인 연행방법,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등등이 일어났으며, 해당 사실등이 대중 매체를 통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2006 년 5 월 16 일 국가 인권 위원회 (CNDH, Comision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및 멕시코주 검찰국 (PGJEM, Procuraduria General de Justicia de Estado de Mexico)과의 면담을 통하여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약속하였으나, 2012 년 7 월 현재까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증거 미숙등의 이유로 인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하나 없이 미제(未濟)로 남아있다.

참고로, 사족(蛇足)을 붙이자면, 한국에서 후진국이며 위험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 멕시코의 국가 인권 위원회는 그래도 무슨 중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미비하지만 행동을 보여주지만, 현병철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한국 국가 인권 위원회는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한진 중공업 사태, 야간 시위 위헌 법률 심판 제청건, 정보 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직권 조사 및 FTA 집회와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 대한 침묵과 기타 여러 가지 인권 탄압에 대하여 외면을 함으로서, 현 한나라당 정부, 아니, 새누리당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대부분의 자문위원이 회의를 느끼며 탈퇴를 한바있는데, 2011 년 멕시코와 협력 협정 체결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다고 하였을 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자고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인데, 스스로의 처신(處身)도 못하면서 외부로 신경을 쓴다니, 그리고, 한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한다는

말씀이 “내가 새기고 갈 일이다. 하나 하나 대응할 일은 아니다”. 본인은 이러한 행위에 한마디 해주고 싶다. **제발 하나 하나 대응해라!!!!!!** 당신은 너무 대응을 안해서 문제야!



Teotihuacan

다른 하나는 2008 년말 “테오티후아칸의 광채 (Resplandor teotihuacano)”라고 명명(命名)된 국가 역사 고고학 위원회(INAH, 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ia e Historia) 및 연방 관광부 (SECTUR, Secretaria de Turismo)의 지원과 함께 시작된 테오티후아칸 (Teotihuacan)의 피라미드 (Piramides)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가로등 및 음향 기기의 설치 프로젝트에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하였으나, 멕시코 주요 단체들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UNESCO)를 포함한 세계 단체들로 부터 중요 문화 유산으로 평가받는 피라미드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의사 소통 (意思疏通)의 문제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2012 년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제도 혁명당 (PRI)은 녹색당 (PVE, Partido Verde Ecologista)과 함께 페냐 니에토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주요 공약(公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관련하여;